



순창군이 올해 특화된 주민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순창군민 주치의(主治醫) 역할을 특목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 없는 순창 만든다

군, 당뇨클리닉·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등 맞춤형 자기관리 실시

순창군이 올해 특화된 주민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순창군민 주치의(主治醫) 역할을 특목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올해 군민 만성질환 관리사업 프로그램에 1억 6천여 만원을 투자해 40여회 운영하고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에 1억 5800만원을 투자해 300여회 운영해 군민 건강증진에 본격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순창군이 추진하는 4대 행정목표인 '만성질환 없는 순창 만들기'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군은 만성질환 없는 순창을 만들기 위해 만성질환자들이 상시적으로 예방과 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을 만든다.

우선 의료원 3층에 당뇨클리닉실을 운영해 고혈압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기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당화혈색소검사와 안과 검진, 단백질 검사 등 고혈압 당뇨 합병증 예방 검진도 연중 실시한다.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고혈압 당뇨 자조교실도 24회 실시한다.

각 읍면을 직접 찾아가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교육도 11회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만성질환 환자가 많이 분포돼 있는 마을 3개를 선정해 실시했던 건강취약마을 만성질환 치유사업도 올해 2개를 추가 선정해 군

민들이 만성질환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건강생활실천 사업도 올해 확대된다. 군은 노인, 성인, 청소년, 유아 등을 구분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교실 프로그램을 4,000명을 대상으로 200회 운영한다.

마을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진행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10개 경로당에서 100회를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도 1개소를 선정해 6회 운영한다.

이외에도 금연클리닉 운영,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두 군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전봉준 장군 탄생 16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고창군, 전봉준 장군 탄생 기념 행사 성료

봉정의식 헌수·봉정·161송이 헌화 등 진행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전봉준 장군 탄생 16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10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열린 기념행사는 박우정 군수, 최인규 군의장,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상임고문, 이기곤 전국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전성준 전봉준 장군 후손, 전국 동학관련단체협의회 회원, 기념사업회 회원과 군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녹두장군 전봉

준의 새로운 역사를 향한 보국안민의 깃발과 꿈은 실패한 혁명이 아닌 살아 있는 혁명이며 온 국민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햇불로 다시 타오르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동학농민군이 추구하고 실천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해 화해·평화·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봉정의식으로 헌수, 봉정, 161송이의 헌화와 전봉준 장군이 서울로 끌려가면서 상처를 치

유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죽령고(대나무죽에 솔잎, 창포 등과 발효한 증류주)를 올리는 순으로 진행했다.

한편,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이며 민백성이 마음을 함께하여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아 '무장포교문'을 선포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 출발을 알린 역사적인 곳이다.

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올바르게 선양하여 녹두장군 전봉준의 보국안민, 제복구민의 깃발과 꿈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경

순창군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힘을 보태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 30%를 감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경계복

원, 분할측량 등 정부 보조사업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업기반시설 정비부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와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군 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순창군 정성취 민원과장은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번 감면조치의 수혜대상인 농업인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왕원 기자



고창군, 생활문화센터 개관

5억5000만원 투자... 판소리 교육공간 등 조성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지역 생활문화예술인들의 공간인 '고창생활문화센터'를 개관했다.

10일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 개관식은 박우정 군수와 최인규 군의장, 지역 생활문화예술인과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창생활문화센터는 동리국악당 인근에 자리했던 기존 판소리전수관을 리모델링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3월부터 조성 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5억5000만원을 들여 부지 5,996㎡에 연면적 793.86㎡ 지상 2층 건물로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센터에는 판소리 교육공간과 함께 연습실 4개와 세미나실, 컴퓨터, 사무실 등이 조성돼 생활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군민과 동호인들이 끼와 재능을 쌓고 소통하는 쾌적한 공간으로 지역 생활문화예술활

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우정 군수는 "어느 지역보다 군민들의 문화·예술적 감성이 뛰어나고 활동인구도 많은 고창군에서 이곳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삶의 활력소를 얻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소통의 공간이 되고 지역 문화예술 지평을 더욱 넓혀 폭넓은 고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생활문화센터는 오는 16일부터 대관신청을 받아 내달 6일부터 대관을 시작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며 토요일은 하절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민 군수, 정유년 맞아 경로당 방문

운영현황·애로사항 청취

심민 군수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 실천을 위해 현장 투어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군은 올해도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고령 영세농 영농경쟁비 지원, 어르신 복지교통카드 교부, 한우 배내기 사업,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 경로당 에어컨 설치 및 급식 도우미 사업 등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

한편 2017년 민생현장(경로당) 방문은 10일 신덕면을 시작으로 11일 오수면, 12일 강진면, 13일 운암면, 18일 덕치면 등 임실군 12개 읍·면 경로당을 방문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은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

할 것"이라며 "어르신 모두가 편안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사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은 올해도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고령 영세농 영농경쟁비 지원, 어르신 복지교통카드 교부, 한우 배내기 사업,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 경로당 에어컨 설치 및 급식 도우미 사업 등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

한편 2017년 민생현장(경로당) 방문은 10일 신덕면을 시작으로 11일 오수면, 12일 강진면, 13일 운암면, 18일 덕치면 등 임실군 12개 읍·면 경로당을 방문할 예정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순창경찰, 공직분위기 조성 현장 교육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에서는 10일 각 과 및 파출소를 직접 순회하며 인사철과 설명절을 앞두고 치안공백 최소화과 함께 건전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교육은 인사철을 앞두고 업무공백 최소화로 출중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주민이 안전한 지역을 본연의 업무를 확실히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현장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건전한 공직분위기를 조성 방안 등 주민에게 더욱 안정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순창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지난 9일 경찰서장 주재로 각 과장, 파출소장 등이 참석한 확대회의를 개최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112신고 즉응 태세 유지 △ 경찰관의 기본자세 등 청렴하고 따뜻한 경찰로 거듭날 것을 참석자 모두 다짐하였다.

신일섭 서장은 "경찰관의 일탈행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에게는 상실감과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며 "순창경찰서 전직원은 청렴하고 따뜻한 경찰로 거듭나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지역특성

남원장학숙 신규 입학생 모집

서울 소재 남원장학숙이 2017년 신규 입학생을 모집한다.

총 35명을 선발하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2월 10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대학원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부·모·학생 중 한명이상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학업성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순위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순위는 관내 초·중학교 졸업자중 관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순위는 관내 초 등 또는 중학교 졸업자이다.

입학생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입학비 7만원과 매월 사용료 1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인1실로 운영되며, 1일 3식의 식사가 제공된다. 편의시설로는 식당, 독서실, 체력단련실 등이 있다.

입사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거나, 남원시 교육체육과(620-5603)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농어촌버스 100원 인상

고창군 농어촌버스의 기본요금인 오는 16일부터 100원 인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운수종사자들의 임금 인상과 이용객 감소 등의 요인으로 운송업체 경영악화에 따라 전북도가 요금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결과 현재보다 214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소비자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평균 7.2% 인상기로 결정해 일제히 100원 가량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 농어촌버스 요금은 지난 2014년 2월 이후로 3년 만에 기본요금 1300원에서 100원이 인상된 1400원으로 적용되며 버스카드 할인(50원)과 초등생(50%), 중고생(20%) 할인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군은 버스요금 조정 안내문을 터미널과 버스 내부를 비롯해 승강장 등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는 한편, 버스요금 인상이 서비스 향상 등 이용객의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버스운송업체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폐비닐 수거보상금 인상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017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을 대거 인상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폐비닐 수거를 도모한다.

시는 2017년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의 등급별 단가를 평균 40원 가량 인상하여 kg당 A급 140원, B급 120원, C급 98원을 지급한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란 농민은 폐비닐을 분리하여 남원수거사업소(호치길 17)로 배출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이물질 함량에 따라 등급 판정을 하고, 시는 등급에 따른 수거보상금을 농가에 지급하는 삼박자제도이다.

시는 지난 해 1,153톤의 농촌폐비닐을 수거하여, 163명에게 9천1백만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올해 사업량은 농촌폐비닐 1,249톤으로 1억2,490만원의 수거보상금으로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과장은 올라간 등급별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을 1월 20일까지 집중홍보하여 더 많은 농민들의 입피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